

생산장성의 비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7년 9월 어느날 희한한 과일대풍을 안아온 과수의 고장 황해남도 과일군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과일대풍을 마련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지가 휘여지게 달린 사과알들을 한알한알 만져보시며 이런것을 보고 땅이 꺼지게 열매가 주렁졌다고 말한다고 하시면서 정보당 70~80t의 과일을 생산한 과수작업반들이 수다하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그루당 평균 200알이상, 최고 300알이상 달린 사과나무들도 많다는데 끔찍이도 많이 달렸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하늘을 쳐다보며 과일농사를 짓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선진적인 과일생산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수준을 높이는데 생산장성의 비결이 있다. ...